

자기계발휴가 결과보고

학습내용	서울선언 _ 김시덕
키워드	켜켜이 쌓인 서울 역사의 흔적들을 따라 서울 곳곳을 알아가는 방법
<p>본 것 ▼ 자기계발 (책)의 주요내용</p>	<p>40여 년간 서울에서 살고 생활했던, 특별할 것 없고 역사가 없어 보이는 곳들을 걸으며 조금은 다른 서울의 역사를 읽어 내는 『서울 선언』을 통해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만나고, 진짜 서울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장소들은 아파트 단지와 상가와 골목, 공단과 종교 시설, 주택가와 빈민가, 유흥가와 집창촌, 서울 안의 농촌 지대 등 얼핏 봐선 볼품없는 곳들이었다.</p> <p>이들 장소의 공통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그곳이 바로 시민의 생활 터전이라는 점, 또 하나는 이 장소들이 서울의 변두리라는 점이다. 저자는 서울이 어떤 도시인지 파악하려면 서울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를 걸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시민이 자신의 도시를 걷기를 권한다. 우리가 사는 주변부를 걸음으로써 뭔가를 얻으려면 준비가 필요한데, 저자의 노하우는 같은 장소를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걷는 것, 여럿이 걷는 것이다. 저자는 이처럼 우리가 사는 주변부를 걷는 것이 바로 자신의 도시를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한다.</p>
<p>깨달은 것 ▼ 나의 이해 · 해석</p>	<p>책을 읽고 우선 서울의 색다른 지식과 작가의 조금 독특한 인문학적인 이해를 엿볼 수 있었다. 조선시대 유적보다 20세기의 흔적이 더 하찮게 여겨지고 잊혀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크게 공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넓고 얇은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 사색할 수 있는 여유라는 점이다.</p>
<p>적용할 것 ▼ 개인 · 직장</p>	<p>디디피 오픈과, 5주년 기념 스페셜투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디디피에 대한 시민들과 건축계의 부정적인 견해를 다시한번 느낄 수 있었다. 즉, “디디피는 조선시대부터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서울의 역사를 무시한 맥락과 동떨어진 건물이다”라는 부정적 견해에 대한 답을 이 책을 통해 찾을 수 있었다.</p> <p>즉, 문헌학자 김시덕의 견해로 보면,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의 역사만을 이상시 하고, 현재의 디디피를 외면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조선시대, 일제시대, 현재의 디디피의 모습, 즉 3시층의 역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올바른 모습인 것이다.</p> <p>동대문 주변의 일제시대 적산가옥과 파맛골의 오래된 상가들이 많은데, 이 건물들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역사이고,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기록해야 할 현실인 것이다.</p>

이 자기계발노트에 대한 진정성에 의심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

(허위로 판명이 될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합니다.)